

남녀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영[†]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근거하여 진로 미결정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1,389명의 대학생이었고 모형검증은 비실험자료를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경쟁모형을 구성하여 진로미결정 모형에서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고 집단별로 각 경로계수의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은 남녀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 집단간 모형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진로미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관계성

[†] 교신저자 : 김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 3277-2637, E-mail : eun-5769@daum.net

직업의 선택은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 되기 때문에 대학시절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에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로서 진로탐색행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여 대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문제는 오랫동안 진로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Gati, Krausz, & Osipow, 1996).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진로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미결정 문제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뿐 아니라 우유부단함, 가치관의 혼란을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상태로서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러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들의 생활실태 조사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은 진로문제에 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서울대, 2006; 이화여대, 2004)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길임주, 한대동, 2004; Tak & Lee, 2003). 2005년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65%에 불과하며 졸업유예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학 휴학률도 26.9%에 이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더욱이 신규졸업자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평균적으로 3-4회 정도의 이직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날로 다양해지는 직업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유지선, 2004).

지금까지 진로미결정의 관련변인을 규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의 하위차원들을 밝혀낸 후 이 차원들이 심리적 변인들

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Gordon, 1995).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불안(Fuqua, Newman, & Seaworth, 1988), 내외통제 소재 및 자아 존중감(Wanberg & Muchinsky, 199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aylor & Betz, 1983), 순종성, 수동성, 높은 인정 욕구, 그리고 자기비판 등의 성격적 경향성(Cooper, Fuqua, & Hartman, 1984)과 성차(Betz & Fitzgerald, 1987)등이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cognition)와 태도(attitude) 변인에 치중하여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서미경, 2002). 그러나 진로미결정이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매우 복잡한 과정임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흥미, 동기(Vallerand, 1997), 그리고 대인 관계적 변인(Bartley & Robitschek, 2000)등과 같은 변인들도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대학지원에 영향을 준 대상이 가족이나 친척(4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6)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도 부모, 친구, 교수, 선배로 나타났다(길임주, 한대동, 2004). 유지선(2004)의 연구에서 부와 모의 애착, 그리고 동료애착이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 152명과 한국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관계성 욕구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Sheldon, Elliott, Kim, & Kasser, 2001).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로부터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관계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또 다른 변인

으로 유능감과 자율성과 같은 욕구변인이 제시되고 있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이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진로결정 활동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느낄 때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로미결정을 욕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되기 보다는 개별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여 연구되었다.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선행 연구들에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욕구, 인지, 태도, 관계, 그리고 동기 변인들을 포괄할 수 있기에 진로미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세 가지의 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자율성 욕구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조절할 때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로 귀인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내적인 인과소재를 갖는 것이다(Ryan & Connell, 1989).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재미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자율성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재미있거나(내재적 조정) 혹은 그 활동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동한다면(확인된 조정) 자율성이 생기면서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생은 같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이 불안을 피하거나(부과된 조정)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면(외재적 조정) 자율성은 감소되고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Deci & Ryan, 1985). 학생들이 내재적이고 확인된 조정에 의해 행동할수록 학교성적이 더 좋아지고 더 끈기가 생기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지되었다(Black & Deci, 2000). Guay 등(2003)의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비슷한 결과는 국내의 한주옥(2003)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유능감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1985).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도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할수록 유능감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도전을 주는 환경 속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유능감을 가져오고 이것이 효능감을 촉진시키면서 내재적 동기를 가져온다(Ryan & Deci, 2000). 유능감과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영역에서 획득되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개념이다(Deci & Ryan, 2000b). 실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효능감과 유능감에 대해서 개념적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Guay et al., 2003). 최근의 메타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학업성취, 직업적 선택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Luzzo, James, & Luna, 1996) 진로미결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유지선, 2004; 이상희, 2005; Betz & Vuyten, 1997; Srsic, 1999).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

다(Baumeister & Leary, 1995).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관계적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느낄수록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한 학생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활동을 함께 하고 모델이 되어주고 조언을 해 준다면 유대관계를 느끼면서 관계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관계성에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경험할수록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직업을 더 다양하게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현, 2003; Kenny, Blustein, Chave, Grossman, & Gallagher, 2003; Roisman, Bahadur, & Oster, 2000).

지금까지 자기결정성 이론은 주로 교육, 육아, 건강관리, 친밀한 관계, 종교적 행위, 신체적 운동, 정치적 행위, 그리고 환경 친화적 행위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Deci & Ryan, 2000a), 최근 들어 이를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틀로 사용한 연구들(한주옥, 2004; Guay et al., 2003)이 제시되었다. 비록 이들 연구를 제외하면 자기결정성 이론을 진로미결정분야에 적용한 연구는 드물지만 이 연구에서는 세 욕구의 충족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진로미결정에 적용하였다. 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로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고(김아영, 2001a; 유지선, 2004)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학문적 직업적 선택과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Lent, Brown, & Hackett, 1994).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이 자율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유능감이 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율성, 유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율성과 유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율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유능감을 지각할지라도 최적의 기능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유능감은 자율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Ryan(1982)은 유능감을 촉진시키는 선행변인으로 자율성을 제시하였고 Williams, McGregor, Zeldman, Freedman과 Deci(2004)는 자율성이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Levesque, Stanek, Zuehlke와 Ryan(2004)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능감을 통하여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한주옥(2004)은 진로를 결정할 때 자율성 지각이 유능감 지각보다 선행된다는 것을 구조방정식의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Guay, Ratelle, Senecal, Larose와 Deschenes(2006)도 자율성이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동기적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관계성, 유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는 관계관련 변인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심리적 변인의 매개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관계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

다. Srsic(1999)의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선행변인으로 가족변인이 나타났고 Whiston(1996)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가족의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rien, Friedman, Tipton과 Linn(2000)은 고등학교 졸업 후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5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연구하였는데 부모와의 애착은 진로관련 과업의 추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 효능감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리(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선(2004)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애착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는 진로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변인이지만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성차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Blustein, Prezioso와 Schultheiss(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및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수록 진로결정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인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Bergeron과 Romano(1994)의 연구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박수길(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 변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인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이현주(2000)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 효능감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Ryan, Solberg와 Brown(1996)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에

게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가족의 역기능성이 자기효능감의 17%를 설명하여 애착이 진로탐색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직업선택에 있어서 성차를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Rush, 2001)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진로행동을 예측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유효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문미란, 2003)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에 제시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모형을 이론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모형을 직접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기초하여 진로미결정 모형을 실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남녀별로 진로미결정 모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집단별 분석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위한 차별적인 진로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6월 2일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 소재한 8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457명의 자료를 표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은 표집에서 제외하여 표집 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1,457명의 자료 중에서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68부를 제거하여 1,389명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의 전공별 분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인문계가 773명(55.7%),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가 510명(36.7%), 예체능계가 105명(7.6%)이었다. 참여자들의 남녀별분포는 남학생이 638명(45.9%), 여학생이 751명(54.1%) 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75명(27%), 2학년이 378명(27.2%), 3학년이 288명(20.7%), 4학년이 348명(25.1%)이었다.

측정도구

진로미결정척도

대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 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보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척도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진로미결정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업 정보 부족 요인(6문항,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4문항, 예를 들면,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성격 요인(4문항,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필요성 인식 부족 요인(4문항, 예를 들면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외적 장애 요인(4문항,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직업을 부

모님이 반대하시 때문에 갈등이 된다)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하위요인은 해당문항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Tak & Lee(2003)의 연구에서 한국진로미결정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각각 .85, .89, .78, .74, .66이며, 2주부터 5주 간격으로 측정된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각각 .40-.86, .41-.90, .56-.85, .21-.92, .29-.8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5개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2, .85, .79, .79, .74이며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진로결정자율성 척도

Guay(2005)가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 척도(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는 진로결정 과정과 연관된 여덟 가지 행동을 측정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해 제안된 자율성 하위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여덟 가지 행동들은 서구 문화권 대학생들의 진로행동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제경(2004)이 선정한 총 15개의 진로행동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2004년 10월 대학생 104명에게 총 15개의 진로행동(7개의 예비적 진로행동과 8개의 본격적 진로행동)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하위요인별로 문항-총점 상관을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1명의 상담교수는 7개의 예비적 진로행동이 문항-총점간 상관이 높았고 본격적 진로행동보다 연구대상인 대학생에게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진로행동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8개의 진로행동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개의 문항이 더 필요하였기 때문에 문항-총점간 상관이 높고 대학생들의 본격적 진로행동으로 적절하다고 상담 전공 석사생 2명이 평가한 문항 1개를 추가하여 총 8개의 진로행동문항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문항마다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이유 4가지, 즉, 외재적 동기, 부과된 조정, 확인된 조정, 그리고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각각 평가한다. 전체 문항 수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아주 많이 그렇다)이다.

자기결정성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차에 따라서(Vallerand, 1997) 각 문항마다 구성되어 있는 4개의 하위요인의 점수들을 계산하여 자율성 지수를 구하였다. 자율성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 동기 + 확인된 조정) - (부과된 조정 + 외재적 동기). 8개의 지수를 순서대로 2개씩 묶어서 평균을 구하여 4개의 지수를 산출한다(Marsh & Yeung, 1997). 그 지수가 긍정적이면 내재적이고 확인된 이유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지수가 부정적이면 부과되고 외재적 이유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수정한 진로결정자율성 척도의 4개 자율성 지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 .90, .85, .79이며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이었다. 이 연구에서 4개 자율성 지수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 .89, .78, .77이며 전체 척도는 .85이었다.

진로결정효능감 척도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는 진로결정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은경(2002)이 대학생 뿐 아니라 중,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킨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et al., 1996)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이다. 하위요인은 해당문항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4개 하위요인은 직업정보(6문항, 예를 들면, 나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목표 선택(11문항,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미래계획(5문항, 예를 들면, 향후 10년 간의 직업고용 경향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3문항, 예를 들면,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이다.

이은경(2002)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4, .76, .78, .79이며 전체 척도는 .85였다. 이 연구에서 4개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7, .87, .64, .75이며 전체 척도는 .90이었다.

진로결정관계성 척도

이 척도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관계성을 느끼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진로결정관계성 척도이다(김은영, 2007).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관계성에 관련된 문헌 및 측정도구 분석, 설문지, 집단토론, 전문가 집단

토론 등을 통해 진로결정 관계성 항목들을 추출하였고 이 항목들에 대한 5인의 전문가 평정 및 예비검사 문항분석을 거쳐 4개 하위 요인 및 문항을 선정하였다. 하위요인은 지지(6 문항, 예를 들면, 진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따 모델링(5문항, 예를 들면 진로 준비행동이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활동(6문항, 예를 들면, 원하는 직업현장을 함께 체험할 사람이 있따 조언(5문항,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응답은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이다. 하위요인은 해당문항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006년 4월 남녀 대학생 252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0, .78, .80, .76이며 전체 척도는 .92로 양호하였고 5주 간격으로 측정된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8, .89, .91, .81이며 전체척도는 .95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4요인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는 530.601이고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는 사례수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에(홍세희, 2001),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RMSEA, TLI, CFI,를 고려하였다. RMSEA는 .08, TLI는 .97, CFI는 .98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4요인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 추정치는 유의도 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든 문항이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4개 하위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3, .82, .88, .81이며 전체 척도는 .93이었다.

분석방법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욕구와 진로미결정과 의 관계를 모형에 기초하여 검증하였고 남녀 별로 구조모형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구조동일성 검증을 한 후 경로계수의 효과 크기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지만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TLI는 상대적 적합지수로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95이상을 그 기준으로 한다(Hu & Bentler, 1999). RMSEA는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일 때(Hu & Bentler, 1999) 좋은 적합도, .05와 .08사이의 값은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각 단계에서 동일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각 모형들이 내재(nested)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 추정법(likelihood ratio test)에 근거한 χ^2 차이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χ^2 검증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 내재된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다른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여 각 모형과 그에 따르는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 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1.0과 LISREL 8.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모형검증을 위한 기술통계

진로미결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남녀별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측정변수들이 3을 넘지 않는 왜도의 값과 10을 넘지 않는 첨도의 값을 보여서 단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지지되었다(Kline, 1998).

표 1.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진로미결정	a1	2.80	2.99	.81	.82	-.098	-.074	-.601	-.607
	a2	2.64	2.72	.99	1.00	.280	.305	-.685	-.668
	a3	2.88	3.11	.92	.86	.079	-.008	-.589	-.522
	a4	1.83	1.63	.84	.69	1.009	1.151	.472	1.004
	a5	1.90	1.84	.76	.82	.664	1.052	-.187	.919
자율성	b1	4.17	5.06	3.77	3.33	1.257	.091	9.237	-.380
	b2	2.65	2.51	4.00	3.77	.429	.252	.127	-.419
	b3	2.64	3.09	3.81	3.70	.965	.313	3.617	-.493
	b4	2.04	2.36	4.00	3.87	.575	.506	-.152	-.368
관계성	c1	4.29	4.44	.91	.87	-.377	-.596	.063	.413
	c2	3.85	3.59	1.13	1.06	-.246	.145	-.536	.739
	c3	3.14	3.22	1.10	1.10	.390	.035	-.407	-.610
	c4	3.41	3.33	1.03	1.00	-.025	-.057	-.296	-.355
유능감	d1	4.33	4.32	.80	.78	-.238	-.242	.026	-.254
	d2	4.10	4.12	.85	.88	-.143	-.226	-.017	.502
	d3	3.80	3.93	1.16	1.08	-.229	-.383	-.586	.004
	d4	3.45	3.25	.86	7.89	.028	1.125	-.099	9.489

주. a1=직업정보부족, a2=자기명확성부족, a3=우유부단한 성격, a4=필요성 인식부족, a5=외적장애, b1-b4=자율성 지수1-4, c1=지지, c2=모델링, c3=활동, c4=조언, d1=목표선택, d2=직업정보, d3=문제해결, d4=미래계획

남녀별 구조모형 검증

자기결정성 이론에 관한 여러 경험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성취행동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형의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김아영, 2001a; 유지선, 2004)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진로결정자율성이 매개효과 없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경쟁모형 A로 구성하였다.

최근에 관계성 욕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진로결정 관계성이 심리적 매개변인을 통해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 자기효능감이 많은 유형의 행동들의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에 근거해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모형으로, 진로결정관계성이 직접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쟁모형 B로 구성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모형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남녀 집단별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은 경쟁모형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에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남녀에 따라 구조모형이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모형, 경쟁모형 A, 경쟁모형 B를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동일한지 알아보았다. 기본모형을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을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세 모형 중에서 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RMSEA, TLI 등 자유도가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 적절한 적합도 지수와 함께 χ^2 값 변화에 대한 χ^2 차이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1). 각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의 경우, 기본모형과 경쟁모형 A를 비교해보면 $\Delta\chi^2(1)=43.9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그리고 RMSEA가 .086, TLI가 .883으로 경쟁모형 A에서 적합도가 나빠져서 기본모형이 경쟁모형 A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기본모형과 경쟁모형 B와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서 기본모형이 경쟁모형 B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서도 기본모형과 경쟁모형 A, 기본모형과 경쟁모형 B와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서 기본모형이 경쟁모형 A, 경쟁모형 B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기본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었으며 두 집단의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두 집단의 모형이 동일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표 2.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기본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지수 비교

모형	χ^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남자-기본모형	553.99	113	.082 (.076-.089)	.893
남자-경쟁모형A	597.94	114	.086 (.080-.093)	.883
남자-경쟁모형B	749.05	114	.092 (.086-.099)	.847
여자-기본모형	541.15	113	.073 (.067-.079)	.906
여자-경쟁모형 A	554.48	114	.075 (.067-.081)	.904
여자-경쟁모형 B	837.91	114	.089 (.084-.095)	.843

서는 기저모형(모형1)과 두 집단사이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을 서로 비교한다.

표 3과 같이 기저모형(모형1)과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의 $\Delta\chi^2(13)=38.69$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p<.001$) 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χ^2 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Steenkamp & Baumgartner, 1998) RMSEA와 TLI를 함께 고려하였다. 표 3에서처럼 RMSEA는 .076, TLI는 .902로 좋아져서 측정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표 3.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비교

	χ^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모형1: 기저모형	1095.13	226	.077 (.073-.082)	.900
모형2: 측정동일성	1133.82	239	.076 (.072-.081)	.902
모형3: 구조동일성	1146.47	244	.076 (.072-.080)	.904

구조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는 두 집단에 대한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 모형을 분석한다. 표 3과 같이 측정동일성 모형(모형 2)과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모형3)의 비교결과 $\Delta\chi^2(5)=12.64$ 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일반적으로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는데 RMSEA와 TLI와 같은 적합도 지수(practical fit index)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가질 수 있다(Little, Preacher, & Card, 2007). 표 3에서처럼 구조동일성 모형의 RMSEA가 .076, TLI가 .904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구조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남녀 집단 간의 구조 모형은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는데 여자대학생 집단에서 진로

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런데 진로결정관계성에서 진로미결정으로의 경로계수가 남녀집단에서 방향성 및 유의미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여 ‘부분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였다(Byrne, Shavelon, & Muthen, 1989). 즉, 남녀간 구조모형이 동일한지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씩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하나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한 χ^2 의 증가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았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모형1과 모형2의 비교에서, 진로결정자율성에서 진로미결정으로의 경로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은 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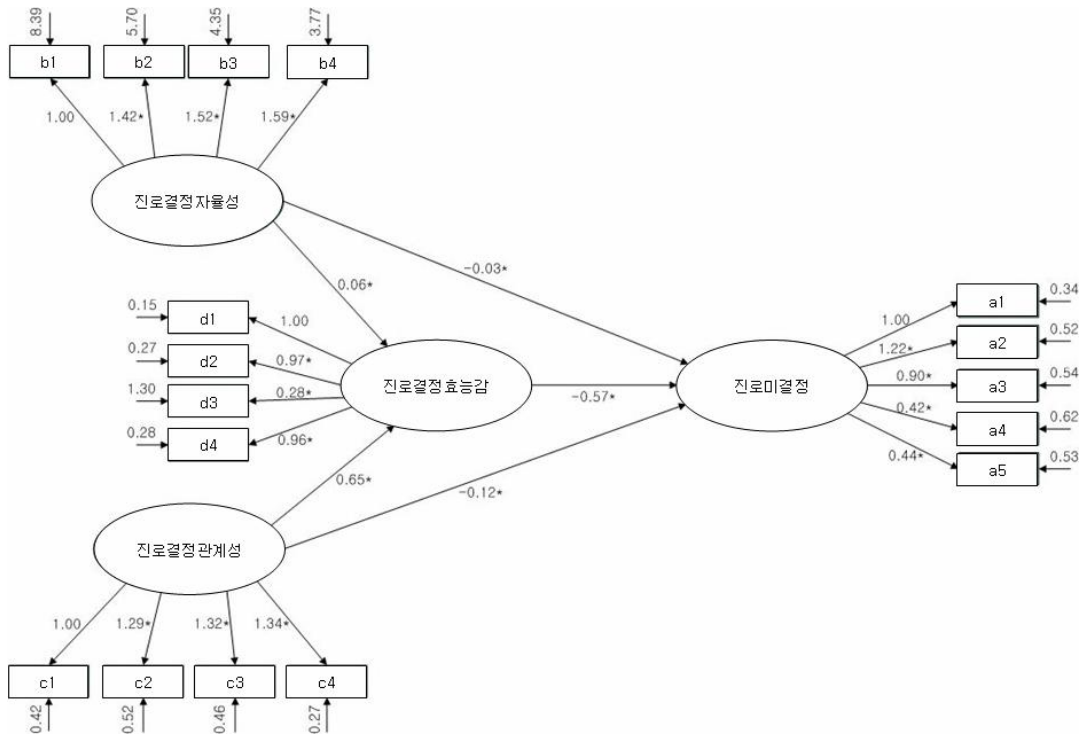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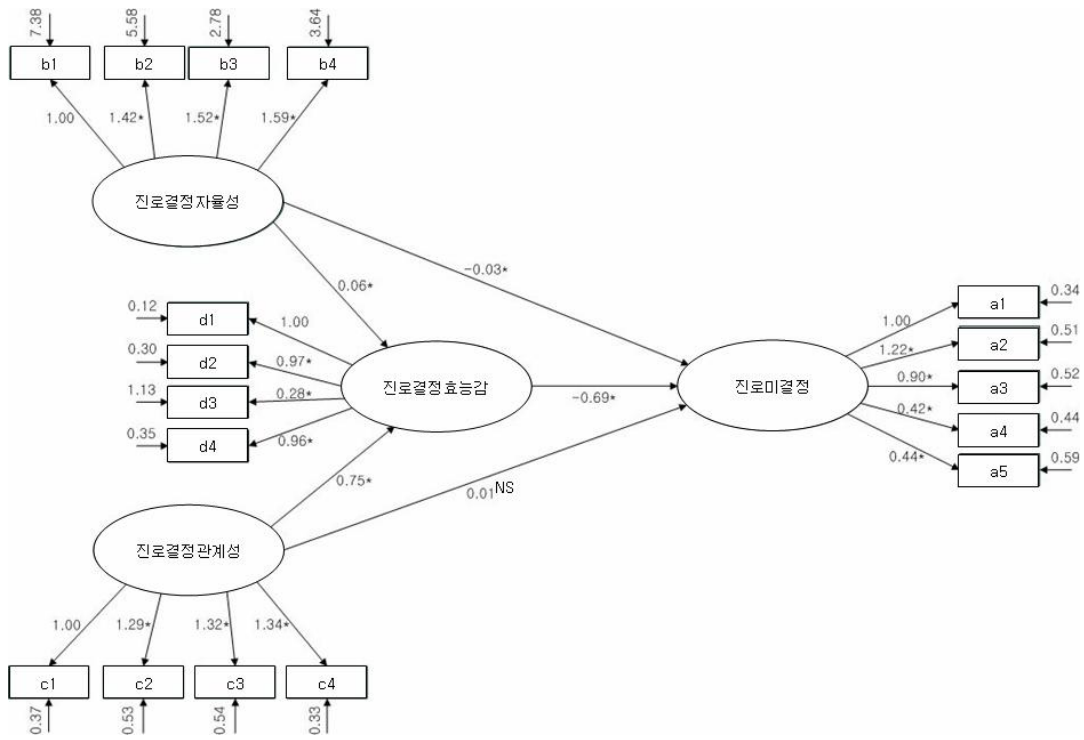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

주. NS는 non significant

표 4.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구조동일성 검증 과정

	χ^2	df	RMSEA (90% 신뢰구간)	TLI
모형 1: 측정동일성(기본모형)	1133.828	239	.076 (.072-.081)	.902
모형 2: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미결정	1133.858	240	.076 (.072-.080)	.903
모형 3: 모형 2 + 진로결정자율성 → 진로결정효능감	1139.166	241	.076 (.072-.080)	.903
모형 4: 모형 3 +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미결정	1142.862	242	.076 (.072-.081)	.903
모형 5: 모형 3 + 진로결정관계성 → 진로결정효능감	1142.492	242	.076 (.072-.081)	.902
모형 6: 모형 3 + 진로결정효능감 → 진로미결정	1143.082	242	.076 (.072-.081)	.902

$\chi^2(1)=0.30$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p>.05$) 모형 1과 모형3의 비교에서 진로결정자율성에서 진로결정효능감으로의 경로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은 $\Delta\chi^2(2)=5.34$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두 경로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형 1과 모형 4, 모형 5, 모형 6의 비교에서는 각 경로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은 χ^2 차이값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 각 경로계수에 대하여 남녀 간 집단에서 동일성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4).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관계성에서 진로미결정으로의 경로계수는 남녀집단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경로계수들도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 집단의 구조모형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남학생 집단의 일반모형으로는 진로결정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는 모형이 지지되었고 여학생 집단의 일반모형으로는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간접효과만을 가지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Kenny(1979)에 의하면,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직접 가는 경로의 효과인 직접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이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로서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나며 전체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다. 이 연구의 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

표 5.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남	진로결정자율성→진로결정효능감	.06*(.19)		.06*
	진로결정자율성→진로미결정	-.03*(-.10)	-.03*(-.13)	-.06*(-.23)
	진로결정관계성→진로결정효능감	.65*(.61)		.65*
	진로결정관계성→진로미결정	-.12*(-.14)	-.37*(-.43)	-.49*(-.57)
	진로결정효능감→진로미결정	-.57*(-.70)		-.57*
여	진로결정자율성→진로결정효능감	.06*(.18)		.06*
	진로결정자율성→진로미결정	-.03*(-.10)	-.04*(-.16)	-.07*(-.26)
	진로결정관계성→진로결정효능감	.75*(.65)		.75*
	진로결정관계성→진로미결정	.01(.01)	-.52*(-.57)	-.53*(-.58)
	진로결정효능감→진로미결정	-.69*(-.87)		-.69*

*p < .05

주. 괄호안은 표준화계수

접효과와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Z_{ab} 검증을 해 본 결과, 남학생 집단의 매개효과는 6.3, 여학생의 경우 8.7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효과 중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각각 50%, 50%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43%, 57%로서 직접효과보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1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집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크기에 대해 Z_{ab} 검증을 해 본 결과, 남학생 집단의 매개효과는 11.6,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도가 10.9로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학생은 -.12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만 여학생은 .0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남학생의 경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24%, 76%로서 직접효과보다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5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53으로 유의미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 후 간접효과는 -.52로 유의미하지만 직접효과는 .01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진로결정효능감이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구조모형과 여학생의 구조모형은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세 가지 모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모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집단의 구조모형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지만 여학생 집단의 구조모형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남학생 집단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B=-.12$)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의미있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주고 활동을 함께 하고 조언을 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애착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Samuolis, Layburn, & Schiaffino, 2001). 이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진로결정관계성 척도와 진로결정자율성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두 척도가 진로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특수한 영역(domain-specific)에서의 관계성과 자율성을 측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우리문화에서 남학생들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여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관계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Duck & Wright, 1993). 이러한 혼동이 결과에 반영되어 모형에서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가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 집단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맥락적 및 환경적 요인들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더 잘 설명된다는 Bandura(1997)의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Lent, Brown, Schmidt, Brenner, Lyons, & Treistman, 2003). 남녀 집단에서 의미있는 사람이 지지해주고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주고 활동을 함께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될 때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녀집단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집단($B=.65$)과 여자집단($B=.7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관계성이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강력한 욕구라는 선행연구(Sheldon et al., 2001)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 한국사회는 부모, 학원, 지연 등을 중요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Tak & Lee, 2003)로 인해 진로를 결정할 때 개인이 속한 집단의 욕구(Triandis & Gelgand, 1998)와 가족 및 사회의 기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06$)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자율성보다 진로결정효능감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B=-.03$)은 남녀집단에서 유의미하지만 약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들(한주옥, 2004; Guay et al., 2003)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진로결정과정에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경제적 사정, 학벌, 연령, 부모님을 포함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의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06$)도 유의미하지만 약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결과가 표본편향에 영향을 받았고 실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서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집단($B=-.57$)과 여자집단($B=-.69$)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과(유지선, 2004; 한주옥, 2003; Betz & Voyten, 1997) 일관된 결과이다.

남녀 집단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였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은 자율성 지각이 유능감 지각에 선행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한주옥, 2003; Levesque, et al, 2004).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모든 성취행동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형의 행동들의 중요한

중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김아영, 2000b; Bandura, 1997)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욕구에 기초하여 진로미결정 모형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 이론을 진로미결정 모형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진로결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둘째,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 집단의 구조모형 차이는 남녀별에 따른 진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남학생들은 여학생과는 달리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성에 기초하여 진로결정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집단 모두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로상담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행동의 기제를 이해하고 진단하고 중재하는데 유용한 체계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여대생들에게는 진로결정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미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 모형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목적지향성, 자기성장 주도성, 내외 통제성과 같은 여러 차원의 동기적 변인들과 결정

스타일, 자아 정체감, 성격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미결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모형 내에서 새로운 변인을 첨가한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상이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표집되었기 때문에 보편성이 제한되었다. 사회경제적 변인이나 기타 배경 변인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결정관계성, 진로미결정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지각이 객관적 실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서 결과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통하여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조모형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자기효능감에 대한 성차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수학, 과학, 기술, 전자 계열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이상희,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남녀 집단 집단의 구조모형의 차이가 보다 전반적인 계열분야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길임주, 한대동 (2004). 학부제하의 남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8, 233-260.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2001a).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17, 5-36.
- 김아영 (2001b).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 97-119.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미란 (2003).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미경 (2002).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6, 67-91.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6).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 저자.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2).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제경 (2004). 한국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의 차이. *교육학연구*, 37, 235-257.
- 이화여자대학교 (2004). 재학생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통한 학생: 교수 지원과 교육환경 수월성 제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 미간행.
- 한국교육개발원 (2006).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유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tley, D. F., & Robitschek, C. (2000). Career exploration: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63-81.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geron, L. M., & Romano, C. (1994).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indecision, vocational indecision, and gender.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19-24.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 exploration and decided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 740-756.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 456-466.
- Cooper, S. E., Fuqua, D. R., & Hartman, B. W. (1984). The relationship of trait indecisiveness to vocational uncertainty, career indecision, and indecisiveness, interpersonal characteristic.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353-359.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a).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Deci, E. L., & Ryan, R. M. (2000b).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uck, S. W., & Wright, P. H. (1993). Re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same-gender friendships: A close look at two kinds of data. *Sex Roles*, 28, 709-727.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ordon, V. N. (1995).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Illinois: Thomas Books.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77-97.
- Guay, F., Ratelle, C.,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1-17.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enny, D. A. (1979). *Correlation and casualit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 Kenny, M. E., Blustein, D. L., Chaves, M., Grossman, J. M., & Gallagher, L. A. (2003).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and relational support in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lives of urb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42-155.
- Kline, L.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Lent, R. W., & Brown, S. D.,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nt, R. W., &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ie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58-465.
- Levesque, C., Stanek, L. R., Zuehlke, A. N.,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 68-84.
- Little, T. D., Preacher, K. J., & Care, N. A., (2007). New developments in latent variable panel analyses of longitudi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357-365.
- Luzzo, D. A., James, T., & Luna, M. (1996). Effects of attributional retraining on the career beliefs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415-422.
- Marsh, H., & Yeung, A. S. (1997). Organization of children's academic self-perceptions: Reanalysis and counterinterpretation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752-759.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01-315.
- Roisman, G. I., Bahadur, M. A., & Oster, H. (2000). Infant attachment security as a discriminant predictor of career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531-545.
- Rush, L. C. (2001). Family relationship dynamics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fr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461.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

-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amuolis, J., Layburn, K., & Schiaffino, K. M. (2001). Identity development and attachment to paren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73-383.
- Sheldon, K. M., Elliot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 i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25-329.
- Srsic, C. S.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congruence and two domains of career process self-efficac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earch 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Steenkamp, J. B. E. M.,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78-90.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28-345.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riandis, H. C., & Gelfand, M.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271-361.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histon, S. C. (1996).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interactions patterns and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 137-149.
- Williams, G. C., McGregor, H. A., Zeleman, A., Freedmand, Z. R., & Deci, E. L. (2004). Test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rocess model for promoting glycemic control through diabetes self-management. *Health Psychology*, 23, 58-66.

원 고 접 수 일 : 2007. 9. 3

수정원고접수일 : 2007. 10. 21

게 재 결 정 일 : 2007. 11. 20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Eun-yo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career decis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study samples were composed of 1,389 students. According to the model, the influences of career decision relatedness and autonomy on career indecision are mediated by career decision competence. Multi-group analysis was carried to compare the career indecision models of men and wome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Key words :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